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음식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조기, 명태, 오징어, 굴비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참돔, 낙지 등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품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여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짜품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추석 축산물  
취급 업소 집중 위생 점검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최근 1년 사이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독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축산물의 냉장 제품 둔갑 판매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 적합 여부 △보존·유통 기준 및 이력번호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615억원 규모 '스마트팜 지구' 조성

##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고 방안 논의

정읍시가 61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구'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읍시의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유호연 부시장, 시의원, 농업기술센터, 관련 기관·농민단체 대표 등 10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지구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 필요성·국내 유사사례 분석 △최적 모델안 제시 △사업 대상지 입지·기반시설 적정성 검토 △국가 공모사업 연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총사업비 61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구 조성을 목



표로 한다. 부지매입(25ha) 임대형·분양형 스마트팜 단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스마트APC센터, 가공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청년농 유입과 지역 농업의 첨단화를 도모한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중간보고회와 12월 국가 공모사업 대응 전략 수립을 거쳐, 2026년 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스마트팜 지구 조성은 정읍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서 즐기고, 정읍서 쓰는 혜택'

## 관광시설 이용 시 정읍사랑상품권 환급제도 시행 '큰 호응'

정읍시가 오는 20일부터 주요 관광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정읍사랑상품권 환급제도를 시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제도는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외 이용객 비중이 높은 국민여가캠핑장과 천사하이로즈 복합놀이시설,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 유원시설에서 운영된다.

특히 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 8월 8일 공포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813호)'에 근거해 환급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예약 시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객은 1회 이용 시 5000원의 정읍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우선예약제'를 이용하면 10만원의 상품



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천사하이로즈 복합놀이시설과 내장산 문화광장 순환열차는 동시에 이용했을 때 시가 정한 환급 제도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이용객에게 5000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급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관외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로 상품권을 활용한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제도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의의회, 청원경찰에 '모범공무원상' 수여

## 법적 타당성 논란 제기

청원경찰에게 부안군의의회가 자체 제정한 '모범공무원상'을 수여하면서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경찰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 포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공무원법과 부안군의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역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

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기관의 청원에 의해 고용되는 특수 경비 인력으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번 부안군의의회가 '공무원상'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직사회 포상제도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수여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나타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노

고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제도적으로 공무원상은 부적절한 수여 대상"이라며 "청원경찰을 위한 별도의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의회의 포상 권한과 행정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근거 없는 포상은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제1회 청년상' 주지은·이동일씨 선정

고창군은 지난 11일 '청년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1회 고창군 청년상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년기업가·봉사·문화예술·청년활동 4개 분야의 후보자들을 심의했다.

심사 결과, 청년 기업가 분야에는 주지은씨(36), 봉사 분야에는 이동일씨(42)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지은씨는 귀농 후 '질마재푸드영농조합'을 설립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농 과자와 가공식품을 개발·유통하며 연 매출 28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다.

또한 지역 청년 창업 멘토링과 판로 개척 활동을 통해 청년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동일씨는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



화 활동, 재해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 정신을 발휘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방역 및 생필품 나눔 활동으로 군민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

'제1회 청년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2025 고창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린다. 기념식과 함께 수상자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사전예약 접수 시작

## 고인돌 세움마당 · 고인돌 마실여행 · 고창갯벌 탐조여행 등 6개 프로그램... 30일까지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박현규)가 오는 10월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의 개최를 앞두고, 축전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 6개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를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고인돌 세움마당 △고인돌 세움마당 △고인돌 마실여행 △고창갯벌 탐조여행 △고창갯벌 무인도 사운드 워킹 △갯벌속으로 GO! GO!이며, 고창의 세계유산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체험형 콘텐츠이다.

프로그램 사전예약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 공식 홈페이지(www.gochangwhf.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063-560-8834)로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가자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이 기대되며, 사전예약 외에도 잔여석에 한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축전 현장에서는 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함께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현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은 "고창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곱 가지 세계유산 보물을 간직한 도시"라

며 "2025 세계유산축전을 통해 고창 고인돌과 갯벌의 가치를 깊이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과 갯벌'은 오는 10월 2~22일까지 21일간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전 기간 고창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개막식, 특별기획전, 유적 투어, 국제학술회의, 환경캠페인, 고인돌 세움마당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발간

부안군은 복잡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절차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부서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실무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 매뉴얼은 건축공사비, 설계용역비, 설계공모 등 사범비 가이드 라인 과 사업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로드맵 형식으로 제시해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도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확

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안군은 전 직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에 등록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건축공사 관련 업체와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허미순 재무과장은 "우리 군 직원들이 건축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